

투데이 칼럼

기회는 지금! 전북이 부자되는 길, 카지노 유치

미국 네바다주에는 사막 위의 두 작품이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이 만든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또 하나는 자연이 만든 불의 계곡. 라스베이거스는 밤이 없는 도시다. 기쁨과 기대, 좌절이 뒤범벅이 되는 환락과 욕망이 들끓는 도시다. 라스베이거스의 거리와 호텔 안에는 지구촌의 고대와 현대가 다 있다.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집도 상점도 거리가 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가 싶더니 소나비가 쏟아진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친다. 갑탄사가 절로 나오는 광경이 호텔 안에서 펼쳐진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룩소르 신전도 있다. 중국 상하이의 동방명주탑도 높이 솟아 있고 뉴욕의 자유여신상도 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호텔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온다. 밖은 40도가 넘는 폭염인데도 호텔 안은 감기가 들 정도로 춥다. 피라미드 모형을 갖춘 호텔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흡사 무덤 속에서 유행들이 움직이고 있는 착각을 갖게 한다. 조각품 같은 호텔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방이 수천 개짜리도 있다. 라스베이거스를 처음 찾는 손님들은 그 화려함에 넋을 잃는다. 호텔마다 유명 브랜드의 상점이 즐비하다. 눈요기만으로도 황홀해진다. 라스베이거스는 낮에는 휴면 상태다. 해가 떨어지면 바빠지고 활기가 넘쳐난다. 화산이 터지고 용암이 흘러나온다.



김 상 호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 대표

“아!” 하는 갑탄사가 절로 나오는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값싸고 맛있기로 유명한 각국의 음식이 있다. 라스베이거스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 확률 게임이지만 그 벼락 맞을 확률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환상 속에 카지노에 들어선다. 그리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게임에 푹 빠진다. 여기서 거둬들이는 세금만으로 네바다주의 재정이 해결된다고 할 정도로 라스베이거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굴러다니는 돈은 돈이 아닐 정도로 돈이 돈다. 뒤늦게 출발한 싱가포르의 불황 때문 남의 이야기일 따름이다. 일자리 넘쳐난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노동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다. 도덕과 절제, 청렴의 도덕국가 싱가포르를 바꾼 것은 카지노다. 싱가포르 경제는 카지노 도입 이후 17.9% 성장했다. 일자리 창출도 컸고, 관광객 수도 전년대비 2% 이상 증가했고, 관광수입도 49% 가까이 늘어났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초 자국의 경제성장률을 13~15%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이 전망한 전 세계 183개

국 중 올해 싱가포르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카타르 뿐이다. 싱가포르가 40년간 금지해왔던 카지노 설립을 허가한 것은 2000년대 미국닷컴 버블 등에 타격을 입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했다. 금융 관광 등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 서비스 산업에선 더 이상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내기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0.8%였으나, 카지노 도입 첫 해인 2010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이 약 15%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성장률을 경험했으며, 카지노 산업이 GDP 성장에 1.5~2%p 정도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본격 운영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4.5%~15.2%로 급등해 경기 침체와 관광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복합리조트에 카지노를 포함, 카지노 도입 이후 싱가포르 경제는 눈부시게 급성장했다. 이웃 마카오가 카지노로 잭팟을 터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카지노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적 동기가 됐다. 카지노 도입 후 싱가포르는 7만

3,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이중 카지노에서 나온 일자리만 4만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태국, 홍콩 등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23일자 전북지역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미래를 내다 보는 좋은 계획이었다. 때는 지금이다. K팝, K푸드가 선봉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우리 전북의 새만금에 카지노를 도입한다면 먹고 살만한 공장도 그렇다고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진다. 먹고 살기 파궤한 전북의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없다. 사행산업에 대한 시시비비는 차후에 따질 사치에 불과하다. 척박한 전북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면 카지노에서 찾아야 한다. 마카오로, 싱가포르로 돈 들고 찾아 가는 사람들을 전북의 새만금으로 끌어들이야 한다. 선진국은 새 세원으로 도박 합법화를 타진할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지역 정치인들이 혼연일체가 돼 하루 빨리 새만금에 카지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도박 합법화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새만금 만한 입지적 조건을 갖춘 나라도 별로 없다. 넓게 펼쳐진 바다와 방조제, 그리고 하늘과 지평선이 어우러진 시원하고 웅장한 풍광이 빼어난 새만금에 카지노를 유치하기만 하면 세계의 관광객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사 설

어느 병원의 수상한 허리 시술

최근 국내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여러 명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 28일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해당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60대 남성 1명은 7월 27일 숨지고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

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 당국은 “환자들에게서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을 수 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8월 1일부터 휴진했다. 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약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 중이다.

2025 한중서예교류전

‘2025 한중서예교류전’이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기스라 1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류전은 (사)한중문화협회 전북지부와 강소성인민대회우호협회와 열성시인문공실이 주최하고 한중서예교류전 집행위원회와 열성시미술관이 주관했다. 전시회는 한국작품 50점, 중국작품 50점 총 100점을 한데 모아 놓았다. 한·중 작가들의 서예 작품에서는 복잡한 사회에서 서예가에게 요구되는 가치 있는 자질을 엿볼 수 있었다. 모두 평화로운 마음가짐과 침착함, 전통에 뿌리를 둔 단단한 실력과 신중한 창작태도로 완성한 작품이다. 전북의 작품은 글씨에 서려 있는 자신감과 웅장한 필치에서는 기개가 엿보며, 정중한 가운데 뒤틀림이 있다. 중국작품은 화려하고 활달하며 자유분방하게 표현됐으며, 최치원, 진덕여왕, 아제현 등의 우리 글을 회호해 양국의 우의를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삶을 깊이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관계성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침묵을 깨는 것이 곧 예방의 시작이다.

여준다. 10여 년 동안 예술성과 창작성이 뛰어난 작품, 한글 유명 인사들의 명언을 작품화한 중국 서법가들,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글 작품 출품 등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모두 한국과 중국의 서예, 서법가들의 우정이 넘치는 작품들이다. 다양한 서예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웃의 피와 작은 강물’ 즉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말처럼 살계천을 서로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인 양국 간의 이번 교류전을 통해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한중문화협회 전북지부는 2014년 한중유명서예가작품교류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2년째 양국을 오가며 한중서예교류전을 열고 있다. 앞으로도 쌓은 우정을 바탕으로 유대를 공고히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많은 교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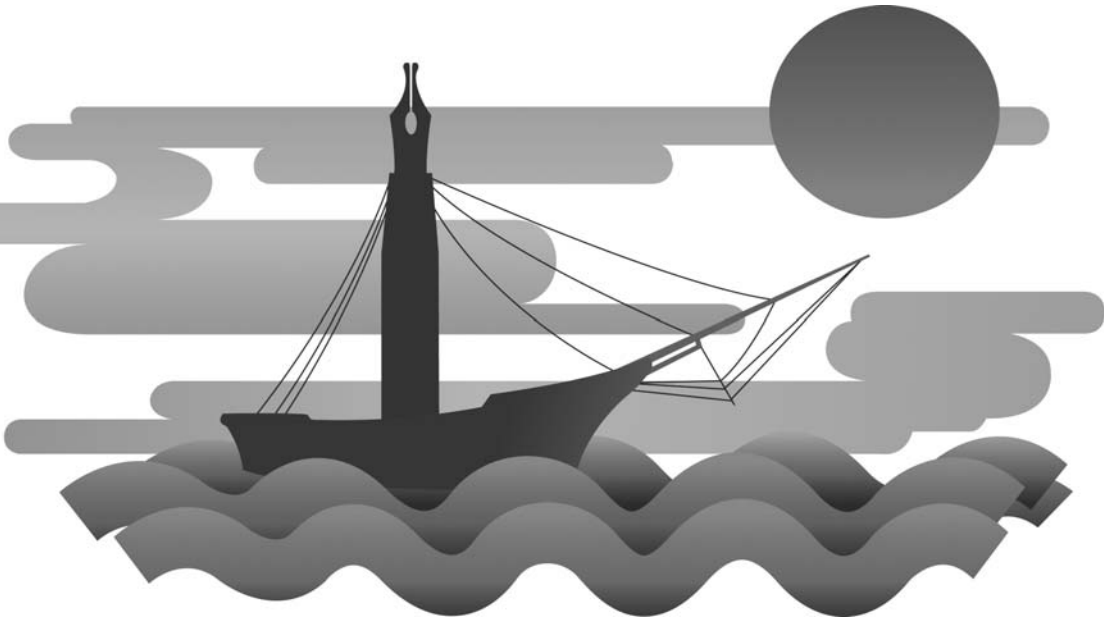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관계 속에서 은폐되는 범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최근 사회는 ‘관계성 범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범죄 유형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가족, 연인, 직장 동료, 지인 등 친밀하거나 반박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범죄를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낯선 타인에게 당하는 범죄보다 훨씬 더 은폐되기 쉽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고, 주변 역시 “가정사”, “사적인 문제”라며 개입을 꺼린다. 그러나 관계성 범죄는 개인의 문제

가 아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 학대, 데이트 폭력,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등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자리 잡았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신고를 포기하거나 중도에 철회했다. 이유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감당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까지 두려워 한다. 관계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 임시 숙소 제공, 상담 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등 피해자가 관계 단절 이후에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 확보도 필수

적이다. 단순한 형벌보다 재범을 막는 교육과 심리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삶을 깊이 파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관계성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로 바라보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 침묵을 깨는 것이 곧 예방의 시작이다. 김은화 고창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